

RESEARCH ARTICLE

Exploring Dāna practice through the Shikoku sacred pilgrimage journal

Kim, Taeyeon (Ven. Do-Saeng)*

Assistant Professor, BongNyeongSa Sangha University

시코쿠 성지순례기를 통해 본 보시행

김태연(도생)*

봉녕사승가대학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ashokka@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 of Dāna(practice of giving) occurring during the Shikoku pilgrimage through literature from a Buddhist perspective and to explore the changes in pilgrims through this act.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rough the travelogues of Shikoku pilgrimage participants, we aim to examine various Dāna practices taking place in Shikoku and explore the pilgrims' sentiments from a Buddhist perspective. Secondly, we seek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ilgrims' minds induced by Dāna practices during the pilgrimage.

The Shikoku pilgrimage narrative in this study is based on published books and officially serialized documents on the internet. The books referenced include works by Gyeongin Seon, Kim Hyo-seon, Choi Seong-hyun, Choi Sang-hee. Internet sources consulted include pilgrimage narratives by Kim Nam-hee, Park Ji-san, Choi Hyeon-gyeong.

The various practice of giving (Dāna) in the Shikoku pilgrimage were classified into material giving (Jae-si), Dharma giving (Beop-si), and fearless giving (Muoe-si) from a Buddhist perspective.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s of pilgrims through acts of giving were comprehensively organized. Through the research, the diverse acts of giving in the Shikoku pilgrimage, performed by givers, pilgrims, and the objects of giving, all embody the pure "selfless giving," characterized by kindness and a heart of blessing without conditions, deeply touching the hearts of pilgrims. This emotional response manifes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feelings of strength, joy, happiness, gratitude, positivity, reassurance, gratitude for the fourfold assembly, profound emotional experiences that helped forget pain and relieve stress headaches.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nges in these pilgrims not only stopped at their own happiness but also led to a reciprocal cycle of giving back to others. The transformation of pilgrims through the giving practice of the Shikoku pilgrimag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 warm society with altruistic characteristics.

Keywords: Shikoku sacred pilgrimage, pilgrim, practice of giving(Dāna; Osettai), self-benefit and benefiting others, giving without attachment to form.



OPEN ACCESS

Citation : Kim, Taeyeon. Exploring Dāna practice through the Shikoku sacred pilgrimage journal.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0, 1-15.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30006>

Received: December 19, 2023

Revised: December 28, 2023

Accepted: December 29, 2023

Copyright: © 2023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1,2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코쿠 성지순례길은 일본의 다양한 성지순례길 가운데서도 연간 20만 명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성지순례길로 일부는 지난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시코쿠 헨로(四國遍路)라고도 부르는, 이 순례길은 홍법대사(弘法大師 空海; 774-835)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코쿠 성지순례길을 따라서 홍법대사가 수행하였거나, 인연이 있는 88개의 사찰을 차례로 참배하며 1,200km가량을 걸으면 다시 첫 번째 사찰로 돌아오게 된다. 이 타원형의 구도는 시코쿠 성지순례길의 특징 중 하나이며 시코쿠 성지순례자들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10번, 20번, 드물게는 100번이 넘게 88개의 사찰을 순례한다.

시코쿠 성지순례의 유래에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사료적으로 추론한 바에 의하면,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년)부터 불자들이 순례하며 수행하였으며(이은경, 2011) 홍법대사도 순례수행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홍법대사 개창설이나 에몬 사부로 발심으로 인한 개창설 등은 근세에 홍법대사 신앙의 부흥으로 시코쿠 성지순례가 대중화되면서 재편성된 것으로 추론한다(송영숙, 2022a).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년)에는 고정된 88개 사찰 순례의 안내책자도 만들어지는 등 민중화·대중화되었다(이은경, 2011)(송영숙, 2022a).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발그니(2019)는 삶의 만족도가 성지순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나 지적인 관심보다 경험을 통한 자신감과 재미, 흥미를 느낄수록 높다고 하였으며, 김정희, 박은숙(2013)은 성지순례의 동기와 목적, 관심사에 따라 성지순례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는데, 관광을 중요시한 사람은 환경적 요인에 만족도가 높았고, 종교적 체험을 중요시한 사람은 그 부분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송이, 정철(2021)은 성지순례에서 느끼는 실존적 진정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과 실존적·종교적 웰빙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즉, 성지순례의 지리적 환경이 완전한 것보다 개인이 느끼는 경험적인 진정성이 만족도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동기와 성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떠난 성지순례는 모든 여정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걸어서 약 45일이나 소요되는 시코쿠 성지순례길을 다시 찾는 요인도 분명히 성지 자체의 매력보다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끼는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09년 이래로 우리나라에도 시코쿠 성지순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순례기 관련 서적(경인선, 2009)(김지영, 2009)(김남희, 2010)(김효선, 2010)(최성현, 2010)(시마 타케히토, 2014)(최상희, 2016)(손석태, 2020)과 더불어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본 연구(이은경, 2012)(이승환, 2019)(송영숙, 2022a),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노지화, 2011), 설화적 관점으로 살펴본 연구(박규태, 2006)(송영숙, 2019)(송영숙, 2022b), 순례자의 목적과 양상에 관해 살펴본 연구(송영숙, 2020), 순례 속의 한국 문화 연구(노성환, 2017), 도보 순례자를 위주로 살펴본 연구(원영상, 2008)(변찬복, 2013) 등이 있다. 도보순례자에 중점을 둔 변찬복(2013)도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불교적 관점으로 ‘보시행’에 초점을 두고 ‘순례자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는 없었다.

시코쿠 성지순례기를 읽으며 작가들의 다양한 경험 가운데 크게 다루어진 부분 중 하나가 ‘오셋다이(お接待)’ 문화였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접대’이나 의역하면 ‘공양’ ‘보시’의 의미와 상통한다.

율장(律藏)에 의하면 부처님의 초전법륜에서의 설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처음 사성제를 설하심에 아야교진여 존자가 아라한과를 증득하였고, 이후에 ‘법’을 연설하여 다른 제자들도 번뇌를 다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법’은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면 하늘에 태어나는 법이요, 음욕은 청정하지 못하며 유루는 얽매이는 것임을 꾸짖고 벗어남은 즐거움이라고 찬탄하는 것¹⁾이다. 이후로도 율장에서는 ‘보시’와 ‘지계’와 ‘생천’에 대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보시’는 불교뿐 아니라 인도의 여러 종교에서도 강조한 덕목(장나겸(승덕), 2023; 이지관, 2008)이다.

하늘에 나는[生天] 복이 되는 ‘보시’에는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재시(財施)’와 진리의 법을 설하는 ‘법시(法施)’가 있으며 이 가운데 불교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는 ‘법시’²⁾이다. 또한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무외시(無畏施)’가 있는데, 오계를 지킴으로써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감싸주므로 자연히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고³⁾, 무재칠시(無財七施)로도 편안한 마음을 제공해줄 수 있다. 무재칠시란 『잡보장경』에 나오는 재물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행으로, ①언제나 좋은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안시(眼施), ②화색을 띤 즐거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화안시(和顏悅色施), ③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언시(言辭施), ④누구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하는 신시(身施), ⑤정성껏 착하고 화한 마음으로 공양하는 심시(心施), ⑥자리를 펴주고 양보하는 상좌시(牀座施), ⑦방이나 집을 베풀어

1) 『四分律』 卷32, (『大正藏』 22, p.788下), “勸令歡喜所謂法者, 布施持戒生天之法, 呵欲不淨有漏繫縛, 讚歎出離為樂”

2) 『增壹阿含經』 卷7, (『大正藏』 02, p.577中), “爾時 世尊 告諸比丘 有此二施. 云何為二? 所謂法施財施. 諸比丘 施中之上者 不過法施. 是故 諸比丘 常當學法施. 如是諸比丘, 當作是學.”

3) 『出曜經』 卷12 ‘11 信品’, (『大正藏』 04, p. 675上-中), “第一施者謂不殺生 是謂長者第一施也 若有眾生 持不殺戒 則於一切眾生慈心覆蓋 亦無恐懼 是謂第一施也. … 若有眾生不犯盜者, 則於一切眾生慈心覆蓋, 亦無恐懼, 是謂第二施也. … 若有眾生不犯姪姪 則於一切眾生慈心覆蓋 亦無恐懼 是謂第三大施也. … 不犯妄語者 則於一切眾生慈心覆蓋 亦無恐懼 是謂第四大施. … 若有眾生不犯酒者 則於一切眾生慈心覆蓋 亦無恐懼 是謂第五大施.”

사람들이 집에 서고 앉고 누울 수 있게 하는 방사시(房舍施)⁴⁾를 말한다.

‘보시’는 대승보살의 수행방편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사섭법의 첫 번째로 보시법이 등장하기도 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으로 육바라밀의 첫 번째로 보시바라밀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법장(法藏, 643-712)의 『화엄경탐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시는 나와 남을 기쁘게 하므로 환희라 이름 한다. 환희하면 곧 행하므로 ‘환희행’이라 이름 하니, 이는 스스로의 기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업의 측면에서 해석한 것[持業釋]이다. 또한 역시 환희의 행을 ‘환희행’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환희하게 하여 스스로의 행을 이룬다는 것이므로 주체의 측면에서 해석한 것[依主釋]이다.”⁵⁾

“별지의 수행 가운데 눈에서는 2가지 행이 있다고 한다. 2섭(二攝)은 이타(利他)이고 보시바라밀(檀度)은 자리(自利)이다. 여기서는 간략하여 보시바라밀이 없는데, 2섭 가운데 보시법은 재시이고 애어섭은 법시이며 무외시는 두 곳에 다 통한다. 그러므로 2섭이 보시바라밀(檀)의 행을 섭수하여 갖추므로 거듭 드러내지 않았다.”⁶⁾

보시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리’적 측면과 환희행으로써 타인을 기쁘게 하므로 ‘이타’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며, 보시법은 이타수행, 보시바라밀은 자리수행이다. 따라서 자리와 이타를 모두 포용하는 보시행이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보시행은 수행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보시행의 마음가짐은 ‘무주상보시’를 바탕으로 한다. ‘무주상보시’는 반야부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사상(四相)에 머물지 말라’는 내용과 상통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차별된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머무름 없는 보시를 행하며, 색에 머무름없이 보시하며 소리·냄새·맛·촉감·법에도 머무름없이 보시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저 상(相)이라는 생각(想)에 머무름이 없어야 하나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의 무더기는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⁷⁾

‘상에 머무름 없이 보시한다’는 것은 보리유지가 번역한 천진보살의 『금강반야바라밀경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이 무슨 뜻을 설한 것인가 하면, 이른바 보시물과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를 하는 자까지 보지 말라는 것이다. 계승에 이르기를 ‘저러한 일들을 조복시켜야 하나니 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멀리 여의라’고 한 것이다. 마치 경에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저 상이라는 생각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다.”⁸⁾

보조지눌(1158~1210) 선사가 처음 불법에 입문한 사람을 위해 쓴 『계초심학인문』에도 “모름지기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삼륜이 청정한 것을 관하여 도용을 어기지 말지어다”⁹⁾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삼륜’은 ‘보시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 ‘보시물’의 3가지를 의미한다.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되, ‘보시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는 모두 준다거나 받는다거나 하는 어떠한 마음의 일으킴 없이 보시를 행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청정한 보시물을 도용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한 보시행이라는 의미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은 ‘청정한 보시물’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습득하지 않은 것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것, 타인을 속여서 습득한 것 등이다. ‘삼륜이 청정한 것을 관하라’는 것은 앞에서 천진보살이 해석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내용과 상통한다.

따라서 상에 머무름 없는 청정한 보시행이 곧 보시바라밀의 실천이며, 시코쿠 성지순례에서는 ‘보시자’와 보시받는 ‘순례자’와 여법한 ‘보시물’이 청정한 무주상 보시바라밀행을 통해 순례자와 보시자가 함께 하늘에 나는 자리이타의 공덕을 닦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을 통해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일어나는 보시행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보시행을 통한 순례자들의 변화를 살

4) 『雜寶藏經』卷6(『大正藏』04, p.479上-中). “佛說有七種施 不損財物 … 常以好眼 視父母師長沙門婆羅門 不以惡眼 名為眼施. … 二和顏悅色施 於父母師長沙門婆羅門 不瞋蹙惡色 … 三名言辭施 於父母師長沙門婆羅門 出柔軟語 非麤惡言… 於父母師長沙門婆羅門 起迎禮拜 是名身施 … 善心和善 深生供養 是名心施 … 六名床座施 若見父母師長沙門婆羅門 為敷床座令坐 乃至自以已所自坐 請使令坐 … 使屋舍之中得行來坐臥 即名房舍施… 是名七施. 雖不損財物 獲大果報.”

5) 『華嚴經探玄記』卷6 「17 功德華聚菩薩十行品」(『大正藏』35, p.218中1-3). “施悅自他名為歡喜 歡喜則行名歡喜行. 此約自喜是持業釋. 又亦歡喜之行名歡喜行 此約令他歡喜成自行故 依主釋也.”

6) 『華嚴經探玄記』卷11 (『大正藏』35, p.314上) “別地行中 論有二行 二攝利他 檀度自利 此略無檀度者 以二攝中施是財施 愛語是法施 無畏通二處 是故二攝以攝具檀行 故不重顯.”

7) 『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08, p.753上) “須菩提 菩薩不住於事行於布施 無所住行於布施 不住色布施 不住聲香味觸法布施. 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不住於相想. 何以故 若菩薩不住相布施 其福德聚不可思量.”

8) 『金剛般若波羅蜜經論』卷1 (『大正藏』25, p.782中) “此文說何義 所謂不見施物受者及施者. 偈言 調伏彼事中 遠離取相心故. 如經‘須菩提 菩薩應如是布施 不住於相想’故.”

9) 『誠初心學人文』 “須念般若心經호대 觀三輪清淨하고 不違道用이어다.” (ABC, H0072 v4, p.738a24-b01)

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코쿠 성지 순례자들의 여행기를 통해 시코쿠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보시행과 순례자의 느낌을 불교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보시행을 통해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순례자들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참고할 시코쿠 성지순례기는 출판서적과 인터넷에 공식 연재된 문헌으로, 출판서적은 경인선¹⁰⁾, 김효선¹¹⁾, 최성현¹²⁾, 최상희¹³⁾, 최현경¹⁴⁾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자료는 김남희¹⁵⁾, 박지산¹⁶⁾의 연재된 순례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II. 시코쿠 성지순례를 통해 본 보시행(お接待, 오셋다이)

시코쿠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의 순례기에서는 한결같이 보시행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순례자들은 어떤 보시를 받았으며 보시행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불교적 보시의 관점인 재시, 보시, 무외시로 분류하였다. 재시는 음료수 과일 식사 등을 두루 포함한 ‘음식 보시’와 돈과 기념품 등을 포함한 ‘물품 보시’로 나누었다. 법시는 순례길을 해매이지 않게 해준 길 안내, 지도 보시, 차량운행 등을 보시해 준 ‘길 보시’와 개인적 성숙으로 이끌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준 ‘지혜 보시’의 관점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무외시로는 무재칠시를 다루었는데, 장소나 공간 수도 등을 사용하게 해 준 ‘공간 보시(상좌시·방사시)’와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친절 보시(안시·화안시·언시·신시·심시)’,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행해진 보시행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록을 바탕으로 각 관점의 기준에 맞게 내용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1. 재시

1) 음식 보시

경인선은 시코쿠 성지순례를 시작한 첫날 30분 만에 길을 잃었다. 1번 영산사(靈山寺; 료젠지)를 찾다가 발견한 슈퍼마켓에서 정중한 인사를 받고 캐러멜을 보시받았으나 순례길에서 행해지는 보시문화를 몰랐기에 어리둥절하였다. 돈을 달라는 건가? 내가 불쌍해 보이냐? 고민하는데 슈퍼마켓 주인은 친절히 길 안내를 한 뒤, 문을 열어주었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보시행’을 “다정한 개인이 베푸는 순례자 전용 복지제도¹⁷⁾”라고 표현한 인선은 한참 적응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최상희는 첫 순례행에 아가타상이라는 동행인을 만났다. 그는 잘 모르는 상회를 위해 숙소도 예약해주고 체력 떨어질 때 먹으라며 사탕과 초코바를 보시받았다. 이 밖에도 지치고 힘들 때 나타난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했다. 달리던 차를 세워서 피로회복제를 주고 마신 뒤 병까지 수거해준 여성에 대해서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지쳐있던 마음도 금세 화력을 찾았다. 내가 지칠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김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내가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덕택이었다¹⁸⁾”고 회자했다. 더위에 지쳐 힘겹게 걸을 때는 음료수 사 먹으라며 150엔을 보시받았고, 그 돈으로 음료수를 사려고 자판기를 찾다가 또 시원한 녹차음료 보시받았다. 다른 수행자와 함께 걸을 때도 보행기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점심 사 먹으라며 1,000엔을 보시해 주셨다. 또 다른 길 위의 행인으로부터는 빵과 피로회복제를 보시받았다. 상회는 흥법대사가 보내주신 것만 같은 보시행 “길을 걷다가 지칠 때면 나타나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들 자체가 순례자들에게는 큰 오셋다이이며, 시코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축복¹⁹⁾”이라고 하였다.

최현경(2021)은 보시하는 곳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였는데, 51번 석수사(石水寺; 이시테지)로 향하는 길에 “커피와 수제 케이크로 보시하고 있으니 순례자들은 사양하지 말고 들어와 쉬었다 가라”고 쓴 입간판을 보기도 하였고, 73번 사찰 선통사(善通寺; 젠쓰지)가는 길에는 “도보순례자에게 보시한다”고 쓰여있는 우동집을 지나치기도 하였다. 보시행을 하겠다는 글을 읽기만 하였음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보시를

10) 경인선 (2009). 일생에 한번은 순례여행을 떠나라. 경기: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11) 김효선 (2010). 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거침없이 걷다. 서울: 도서출판 바람구두.

12) 최성현 (2010). 시코쿠를 걷다. 경기: (주)위즈덤하우스.

13) 최상희 (2016). 시코쿠를 걷는 여자. 서울: 도서출판 푸른향기.

14) 최현경 (2021). 최현경의 시코쿠 순례 ①~⑨. 매경ECONOMY, 2090~2106, 서울: (주)매일경제신문사

15) 김남희 (2009) 김남희의 시코쿠 도보여행 ①~⑥, 한겨레esc.

16) 박지산 (2018-2019). 정진의 길, 시코쿠 1~35. 현대불교신문.

17) 경인선, 앞의 책, p.40-45.

18) 최상희, 앞의 책, p.66-67.

19) 최상희, 앞의 책, p.162-163.

받은 것처럼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섰다”고 기재했다.

김남희(2009)는 절을 참배하고 나서면서 공양간 보살님이 주는 사탕을 한 움큼 받기도 했고, 길 건너편에서부터 달려와 보시라며 받아달라는 소녀의 빵 봉지를 받기도 했다. 길을 걷다가 코스모스가 예쁜 집을 만나서 잠시 쉬어가는데, 길을 쓸던 아주머니가 음료수와 과자를 보시해주었고, 발바닥 물집의 통증이 심해서 바다를 감상하는 것도 잊었을 때는 지나가던 자전거 순례자가 ‘힘내라’며 배낭에서 사탕을 꺼내 보시해주었다. 남희는 “언제 받아도 기쁘고 고맙다”며, “(이시코쿠) 길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라고 기재했다.

박지산은 31번 죽림사(竹林寺; 치쿠린지)의 휴게소의 나무 그늘 안에 들어있는 보시용 과자로 요기하고 32번 사찰 선사봉사(禪師峰寺; 켄지부지)로 나아가 납경 후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순례하던 노부부가 멀리서 왔는데 먹는 거라도 잘 먹으라며 1,000엔을 보시하였다. 33번 설혜사(雪蹊寺; 셋케이지)로 가면서 보시금으로 빵을 사 먹으러 들어갔더니 빵집 주인이 보시라며 빵 2개를 더 주었다. 그날 밤 선근숙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의 많은 보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자 저절로 손이 합장되었다. 34번 종간사(種間寺; 타네마지)의 납경소에서는 첫 도보순례자라며 과자 한 봉지를 보시받았고, 39번 연광사(延光寺; 엔코지)참배를 마치고 나서던 길에서는 시원한 보리차와 주먹밥과 반찬을 보시받았다. 이곳의 건물에는 흰 깃발이 걸려있었는데 지역 부인회에서 매년 봄·가을에 주기적으로 순례자에게 보시하는 곳이었다.

지산은 42번 불목사(佛木寺; 부츠모쿠지)로 향하는 뜨거운 평야에서 특별한 보시행을 경험했다. ‘국수 먹고 가라’는 소리에 돌아보니, 마침 유치원에서 양로원을 방문하여 나가시소멘(流し素麺)을 먹고 있었다. 덕분에 지산은 영화에서 보던 장면처럼 물을 따라 흐르는 소면을 건져 먹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유치원 선생님은 순례자를 처음 본 아이들에게 성지순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지산이 한국에서 와서 1번부터 걸어 순례하고 있다고 하니 놀라워하며,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쫄면도 보시해주었다. 지산은 우연히 초대받아 잘 얻어먹고 신기한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길이라 표현했다(박지산, 2019). 아이들이 순례자를 처음 보았다는 부분에서 시코쿠에서도 순례자를 만나는 인연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산은 순례길에서 만난 2명의 일행과 잠시 동행하게 되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2시간가량 걷다가 지쳐 버스정류장에 쉬러 들어갔다. 정류장에 있던 할아버지가 굴 먹으려냐고 묻고는 갑자기 밖에 있던 트럭을 타고 가버렸다. 일행이 모두 당황하고 있는데, 5분 뒤 돌아온 할아버지의 손엔 분탄굴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가 있었다. 까먹고 남은 것은 각자 챙겨 놓고 시은으로 묵직해진 배낭을 짊어지고 웃으며 다시 순례길에 나선 순례자들은 모두 한층 밝아졌다.(박지산, 2019) 김효선도 시코쿠에서 만난 굴에 대해 직접 보시받은 적도 있고, 마당의 바구니에 가져가라고 써진 것을 보기도 하였다며 시코쿠의 남다른 굴 인심에 대하여 적었다.²⁰⁾ 시코쿠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굴이므로 농장 근처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굴 보시가 행해지고 있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보시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시 가운데 음식 보시이다. 시코쿠에서의 음식 보시행은 무인으로도 행해지고, 같은 순례자끼리도 행해지며, 순례길 위의 상점에서도 흔연히 행해지고 있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욕구이므로, 험한 성지순례길에서도 음식 보시행은 필수적인이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음식 보시행은 순례자들에게 시코쿠 성지순례길이 품고 있는 신기하고 특별한 아름다운 비밀로 다가왔으며, 흥법대사가 보내주신 것만 같은 소중한 인연이었다.

2) 물품 보시

최상희는 순례 첫날 순례복장을 마련하려고 들린 불교용품점에서 한 비구니스님에게 백의를 보시받았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스님은 몸 건강히 다녀오라는 인사만 남기고 가버렸다. 상희는 갑작스러운 스님의 보시행에 본당에 가서 기도올리며 “비에 젖어 서늘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덥혀지는 것 같았다²¹⁾”고 서술했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순례자 복장이 있다. 옛날에는 순례하다 죽는 경우도 많았기에, 순례자가 입는 백의는 곧 수의이고 샷갓은 관뚜껑이며 지팡이는 묘비로 사용되어 왔다. 복장이 많이 간소화된 근래에도 위 3가지는 갖춰 입는 추세이다. 비구니스님은 상희에게 성지순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백의를 보시하면서 건강히 다니라는 축원을 함께 건네고는, 할 것은 다 했다는 듯 인사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가버린 것이다. 순례자의 원만한 성지순례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머무는 바 없이 행해진 청정한 보시행이었다.

김남희(2009)는 물집의 통증으로 길가에 앉았을 때 맞은 편 가게 아저씨가 불러 녹차, 화과자, 반창고를 주시더니 먹고 떠날 때는 열쇠고리와 커다란 기모노인형을 보시해주었다. 보시를 받을 때면 물집의 통증도 사라져 버렸다. 30번 선락사(禪樂寺; 켄라쿠지)로 향하던 길에서 만난 할머니는 스쿠터를 몰고 지나가다가 500엔을 보시했다.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순례자에게 반드시 보시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하였다. 최상희도 순례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1,000엔을 보시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순례자에게 보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이 섬의 오랜 전통을 기쁘게 받아들라고 하였다. 순례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상희에게 1,000엔을 보시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순례자에게

20) 김효선, 앞의 책, p.146-147.

21) 최상희, 앞의 책, p.18-19.

보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이 섬의 오랜 전통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였다. 최현경(2021)도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2,000엔과 모찌를 보시해 주었는데, 거둬 사양했음에도 주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시골에 사는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데 오늘 순례자를 만나 보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경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받아온 친절이 보시행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음식 보시에서 다루었던 금전과 물품 보시에서 다루는 금전의 차이는 보시자의 의도에 두었다. 음식 등을 사 먹으라는 마음이 담긴 보시행과 순례자에게 용도를 맡기는 보시행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시자들은 보시의 동기를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 이 섬의 전통, 공덕짓기 등으로 밝혔다. 금액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각자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선에서 순례자에게 보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77번 사찰 도용사(道隆寺; 도류지) 근처에서는 한 청년이 홍법대사를 도자기로 빚어 참배한 순례자에게 보시하고 있다. 최현경(2021)도 중년여인이 따라와서 아들이 만들었다며 전해주는 도자기인형을 받고 돌아보니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현경은 수많은 홍법대사를 만든 청년을 무명예술가로 표현하며 시코쿠 사람들의 보시행이 무주상보시임을 알지만, 이 무명예술가의 공덕은 꼭 보답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늘 홍법대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였다.

시코쿠 성지순례길에서의 재시는 음식물부터 기념품,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었으며, 보시행의 넉넉한 인심은 간판만 보아도 흐뭇한 기쁨과 행복감과 감사함을 일깨웠다.

왜 보시물을 주느냐는 질문에 시코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보시행을 배웠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는 사상과 관계있다.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은, 순례자가 혼자인 것 같아도 늘 홍법대사와 함께 걷는다는 뜻이다. 순례자의 복장에도 동행이인이라고 적혀있으며, 순례 시 몸을 의지하며 걷는 금강장(金剛杖; 콘코즈에)도 홍법대사의 화신이라 여겨 함부로 하지 않는다.²²⁾²³⁾ 따라서 시코쿠 사람들은 홍법대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자를 그의 화신으로 여기며 보시행으로써 공덕을 지어왔다. 보시행을 실천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기에 그저 부모에게 배웠다는 명목만으로도 기쁘게 순례자를 향해 보시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행해진 보시행은 ‘자리’이며, 순례자들이 느낀 기쁨은 ‘이타’인 동시에 ‘보시섭’이다. 삼륜이 청정하게 이루어진 무주상보시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이며,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보시행은 순례자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왔고, 나아가 보시자들을 위해 축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법시

1) 길 보시

모든 보살의 수행에는 눈 밝은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도 “보시·청정한 계·편안한 인욕·정진·청려바라밀다의 모든 맹인의 무리가 만약 반야바라밀다에 눈 밝은 이의 안내가 없다면 오�히려 보살의 정도에 나아갈 수 없거늘 하물며 일체지의 성에 도달하겠는가²⁴⁾”라며 ‘눈 밝은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수행의 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인생의 길이나 성지순례의 길이겠는가. 따라서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길 안내도 ‘법시’로 구분하였다. 시코쿠에서의 길 안내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최현경(2021)은 시코쿠에 온 첫 날부터 숙소를 못찾았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숙소 주소만 들고 헤매고 있는데, 한 남성이 메모를 유심히 보더니 전화로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고 민박집까지 동행해 주었다. 연신 감사하다 인사하자 ‘간밤데’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민박집 주인은 순례한다는 말에 첫날 묵을 숙소도 예약해주고 1번 사찰로 가는 길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다. 또 55번 사찰(난코보)로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자전거에서 내려 절까지 바래다 주셨다. 목적지를 조금 돌러가더라도 함께 걸으며 순례자를 안내하는 것은 시코쿠 사람들의 보시행 가운데 하나이다. 경인선도 38번 사찰 근처에서 만난 아사즈상이 10Km 이상을 같이 걸어 안내해 준 비슷한 사례²⁵⁾가 있다. 아사즈상은 집에 갔다가 차를 끌고 다시 와서 인선과 직접 담근 유자차를 나눠마시고 동전지갑과 88개 사찰의 기념우표를 보시해 주었는데, 마침 동전지갑을 잃어버렸던 인선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 우표로 만든 엽서는 다른 순례자들이 시코쿠에서 받은 영감을 인선에게 전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최현경(2021)은 51번 석수사(石水寺; 이시테지)로 향하다가 순례자 표식이 보이지 않아 불해질 때 쯤 한 가정집 창문에 ‘석수사까지 800m’라고 쓰여진 글을 발견하였다. 표식이 끊겨 불안한 순례자를 위한 집주인의 배려에서 나온 보시행이었다. 시코쿠 성지순례길을 걷다 보면 무수히 많은 순례자 표식이 있다. 대부분의 순례자 표식은 가로대나 가드레일 등 지역 공공재에 붙어있는데, 가끔 개인이 순례자를 위해

22) 최상희, 앞의 책, p.223-224.

23) 경인선, 앞의 책, p.35-36. p.175

24) 『大般若波羅蜜多經』 卷434(『大正藏』 07, p.182下) “布施 淨戒 安忍 精進 靜慮波羅蜜多 諸生盲眾 若無般若波羅蜜多淨眼者導 尚不能趣菩薩正道 況能遠達一切智城.”

25) 경인선, 앞의 책, p.152-156.

걸어놓은 표식이나 응원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순례자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시코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무주상보시행이며, 이들의 배려가 때로는 개성있게 손수 그린 지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김남희(2009)는 길을 나서며 만난 트럭운전사에게 정성껏 그린 지도를 보시받아 ‘좋은 시작’을 느꼈다. 최현경(2021)도 19번 입강사(立江寺; 다츠에지)에서 만난 학생들이 개성있게 만든 지도를 보시받았다. 현경이 받은 지도는 길이 꼼꼼히 그려져 있었는데, 일행이 받은 지도에는 식당마다 ‘맛있음’, ‘맛없음’ 등이 표시되어있어 미소를 자아냈다.

우리나라에 깔딱고개가 있듯 시코쿠 성지순례 길에도 ‘헨로고로가시(お遍路転がし)’가 있다. 직역하면 ‘순례자 자빠진다’는 의미로 88사찰을 순례하는 중 이 깔딱고개를 8번정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 한곳이 60번 사찰 인데, 최현경(2021)은 이 길에서 순례자 3명을 만나 함께 걸었다. 3분 다 정년퇴임한 60대 후반 아저씨인데도 속도가 빨랐는데, 부지런히 따라가다가 경사가 심한 길에서는 힘들어 주저앉기도 하였다. 그들의 일정에 방해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들은 내색없이 사탕을 나눠주고 심호흡할 수 있게 도와 주었으며 중간중간 쉬면서 기다려주었다. 힘든 산길을 걷다보면 혼자 낙오되어 길을 헤매이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누군가 기다려주며 함께 걷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된다. 이 순례자 3명은 현경에게 인도자로서의 법시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를 동시에 행하고 있다.

시코쿠 순례에서의 보시는 거절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거절해도 실례가 아닌 보시가 있는데, 바로 도보 순례자에게 권하는 자동차 보시이다. 박지산(2019)은 36번 청룡사(靑龍寺; 쇼류지)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트럭 할아버지의 자동차 보시를 거절하였다. 이 트럭 할아버지와 인연은 38번 금강복사(金剛福寺; 콘고후쿠지)가는 길에 다시 이어지게 된다. 같은 사람에게 2번의 거절은 실례가 되므로 할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하루 종일 걸었을 거리를 40분만에 도착하였다.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9번 연광사(延光寺; 엔코지)까지 다시 자동차 보시를 해주었다. 덕분에 8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숙하며, 도보를 고집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인연들에 감사하였다. 트럭 할아버지는 유난히 간격이 멀어 하루 종일 걷는 코스인 36-41번 사찰 주변에서 일을 하며 오가다가 만나는 순례자들에게 꾸준히 자동차 보시를 행하고 있는 분이였다. 순례자들을 태워주며 자신도 부분적으로 성지순례를 반복하고, 순례자들이 잠시의 휴식과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며 머무는 바 없이 공덕을 짓는 무주상보시행이었다.

최성현은 빗길에서 만난 버스 기사님이 요금을 받지 않고, 목적지에서 점심을 먹을 곳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알고는 도시락까지 보시해 주었다. 불편한 마음에 버스요금을 내겠다고 하자 기사님은 ‘오다이시상(큰스님씨; 흥법대사)에게 받을테니 마음 편히 가라’며 부드럽게 거절하였다. 성현은 “이름도 모르고 헤어진 그 운전사의 행동은 내게 베풀 같았다. ... 그 여성 운전사와의 만남은 ‘정말 순례하러 오길 잘했다!’고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외치고 싶을 만큼 반가웠다”²⁶⁾고 회고했다. 버스 기사님이 말한 ‘오다이시상(큰스님씨)’은 흥법대사가 열반에 들지 않고 여전히 돌아다니며 중생구제에 힘쓰고 있다고 믿는 대사신앙(박규태, 2019)과 유관하며, 이러한 보시행의 기원은 시코쿠 성지순례 개창설화 중 하나인 에몬 사부로의 발심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몬 사부로는 탁발하는 순례자 모습의 흥법대사를 몰라보고 문전박대한 뒤 8자녀를 잃었다. 참회하기 위해 시코쿠 성지순례를 돌다가 죽음을 맞이 전야에 흥법대사를 친견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설화(송영숙, 2019)이다.

시코쿠 성지순례자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만난 사람들은 인로왕보살처럼 편안하게 앞으로 이끌어 주었다. 먼 길도 망설임 없이 바래다주었으며,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는 내색 없이 기다려 주기도 하고, 긴 길은 표식을 남기거나 자동차로 태워주기도 하였다. 덕분에 순례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씩씩하게 힘을 낼 수 있었으며, 기적처럼 통증을 잊었다. 정성 어린 지도를 보시받았을 때는 행복감에 좋은 시작을 예감하였고, 재치있는 지도에는 즐거운 미소를 짓게 해 주었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마음에 머무름 없는 청정한 보시바라밀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2) 지혜 보시

사람들은 법문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때로는 언어보다 단순한 행동이 가슴에 길게 남기도 한다. 시코쿠 성지순례길에서도 다양한 인생의 깨달음이 자아성찰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하였다.

김효선은 41번 용광사(龍光寺; 류코지)의 납경소에 있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를 야기했다. 시코쿠 순례자들은 88개 사찰을 순례하며 각 절의 납경소에 들려 도장과 목서를 받는데, 써주는 사람이 정성스레 써주면 마음이 더욱 숭고해지기 마련이다. 용광사 납경소의 할머니는 납경장을 받을 때도 가슴으로 당겨 고개숙여 예를 올리고 정성스레 글씨를 써주셨다. 마르지 않은 목서가 번지지 않도록 하얀 화선지를 끼우고 나서 다시 납경장을 가슴으로 가져가 고개숙여 예를 올리고서 돌려주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납경을 모두 정성스레 하는 모습을 보고서 효선은 “감동은 늘 이렇게 예사로운 일을 예사롭지 않게 만드는데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²⁷⁾ 생각하였다.

최성현은 시내를 지날 때 거리에서 광고지를 나눠주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체하고 지나가고 귀찮은 기색을 보이며

26) 최성현, 앞의 책, p.19-24.

27) 김효선, 앞의 책, p.152-154.

지나치는데, 한 할머니가 상전에게 큰 하사품을 받는 것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한 장면으로 성현은 손익을 철저히 따지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고 오래도록 돌아보게 되었다.²⁸⁾

성현은 18번 은산사(恩山寺)로 가는 길에 순례자를 위한 정자에서 차와 꿀과 과자를 보시하던 할머니를 만났다. 처음에는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의 할머니라 생각했으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고 연락처를 건네고, 100세까지 산다는 기준으로 남은 날을 적어놓은 수첩을 보여주며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성현은 “모든 이는 부처”라며, “경계해야 할 것은 옷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눈”이라 적었다.²⁹⁾

박지산(2019)은 37번 암본사(岩本寺; 이와모토지)로 향하는 길에 해마다 들렀던 휴게소 앞에서 정진하는 스님과 나란히 노숙을 하였다. 아침 일찍 출발하려는데, 휴게소 옆의 채소직판장 할머니가 토마토 2개를 보시해 주었다. 해마다 이 휴게소 앞에서 보시를 받았는데, 첫 순례에는 도시락을 보시받았고, 두 번째도 먹을 것을, 세 번째는 식사를 보시받았으며, 네 번째 순례에는 정진하는 스님과 자고 토마토를 보시받았다. 지산은 전날 스님이 다라니를 지송하면서 걸던 것을 본받아 진언을 외우면서 순례길로 나아갔다. 염송하면서 걷는 방법도 바뀌었는데, 전에는 힘들면 대강 시간을 정해서 쉬었다면, 진언을 외우면 54번 염송에 가볍게 쉬고, 108번 염송하면 쉬기로 하면서 나아가니, 호흡과 진언과 관상이 틀릴까 반듯하게 마음을 챙기며 순례하게 되었다.

최성현은 한 선근숙에서 독경하던 스님을 만났다. 그는 4년째 순례와 참회로써 수행하는 스님이었는데, 참회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에게 땅콩을 한 알 주며 새싹처럼 합장하고 찬양, 감사만을 하는 마음처럼 순례하면 흔들림없는 평화를 얻을 것을 알려주었다. 이후로 매 순간 만나는 불편함 앞에서 합장과 감사와 찬양을 떠올렸으며, 모든 식물을 마음의 스승을 삼는 법을 배웠다.³⁰⁾

시코쿠 성지순례자들은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과 자연현상까지도 다 홍법대사의 화신, 즉 선지식으로 여긴다. 최성현이 만난 한 순례자는 어떤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어보고도 마음대로 가다가 한참 동안 헤매 경험을 이야기하며, 홍법대사가 화신으로 나타나 자만심을 일깨워 준 것³¹⁾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므로 자연스럽게 시코쿠 성지순례자들도 순례길에 만나는 모든 인연을 선지식(홍법대사)으로 여기며 열린 마음으로 소중히 대하게 된다. 순례자들은 힘든 길에서 만난 동행인도, 잃어버린 길을 안내해준 사람도, 심지어 길가의 간판과 힘내라는 표식까지도 보시바라미의 실천으로 여겼다. 이러한 마음으로 순례 정진하니, 순례길에서 만난 스님은 물론 할머니의 공손한 모습이나 정성 어린 태도, 대화 등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숭고함과 감동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였다. 합장·찬양·감사의 마음으로 자연 속의 식물까지도 선지식으로 삼으며, 진언염불로 마음챙김하면서 성지순례길에 임하였다.

3. 무외시 (무재칠시)

1) 공간 보시(상좌사·방사사)

시코쿠 성지순례길에는 노숙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통야당(通夜堂; 츠야도), 대사당(大師堂; 다이시도), 선근숙(善根宿; 젠코야도), 민숙(民宿; 민슈쿠), 국민숙사(國民宿舎; 고쿠미슈크사) 등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운영중인 숙박시설들도 있다. 현재는 무례한 순례자들로 인해 노숙이 금지된 곳도 있고, 운영을 안해 없어지는 곳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시하는 마음으로 운영되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절에서 운영하는 통야당이나 선근숙은 되도록 혼숙을 지양하기 때문에 방이 하나일 경우 먼저 도착한 순례자의 성별에 따라 숙박가능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최상희는 순례길 내내 좋은 동행자를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이 다카하시상이다. 그는 22번 평등사(平等寺; 보도지) 참배를 마치고 자려고 했던 선근숙에 남성순례자가 먼저 와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아저씨께 이야기해 근처에 다른 집을 구해주고서야 자신의 숙소로 이동하였다. 새 숙소의 주인할아버지는 저녁 식사여부를 물어보고는 한국인임을 고려해 김치사발면과 연어초밥, 삼각김밥을 보시해주셨다. 상희는 “잘 공간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손수 이것저것 챙겨주시다니. 닭똥같은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어느 때보다 힘든 날이었는데 할아버지의 자상함에 모든 시름을 잊어버렸다. … 흐르는 눈물과 함께 먹었다³²⁾”고 그 날의 감동을 적었다. 숙소의 할아버지도 늦은 시간에 찾아온 순례자를 냉대하지 않고 한국사람인 것을 고려해 김치사발면을 고르는 마음으로 상희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들의 행동은 어떠한 댓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는 ‘무주상보시행’이었기에 더 큰 감동으로 이어졌다.

상희는 동행인을 따라 노숙도 시도하였는데, 3일 연속 노숙한 뒤 4일째는 75번 선통사(善通寺; 젠츠지) 근처의 선근숙에 짐을 내렸다. 짐

28) 최성현, 앞의 책, p.123.

29) 최성현, 앞의 책, p.121-122.

30) 최성현, 앞의 책, p.151-156.

31) 최성현, 앞의 책, p.32-33.

32) 최상희, 앞의 책, p.62-63.

을 풀고 타코야키집에 저녁먹으러 갔다가 전화통화하면서 노숙도 머리 못감는 것 빼고는 괜찮다고 하였는데, 사장님이 듣고서 가게의 목욕탕과 식후 맥주를 보시해 주셨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씻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선근숙의 주인이 삶은 계란과 굴을 챙겨주셨다. 숙소를 보시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일부러 늦은 밤에 들려 보시행을 하는 모습에 그동안의 많은 보시행을 떠올리며 “언젠가 나도 다른 순례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였다³³⁾.

경인선은 주말을 앞두고 ATM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문제가 생겨 지갑엔 1만엔만 남았는데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23번 약왕사(藥王寺; 야쿠오지) 참배를 마치고 불안함 속에 선근숙을 찾았다. “무료 숙소라고 해서 대충 꾸민 오두막이 아니라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갖췄다는 사실이 더 대견하다.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지는 욕조에 그만 가슴꼭지가 먹먹해 온다. 저녁은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내이리 아침도 공짜로 준다니, 이렇게 정성을 쏟은 주인은 누굴까? 나그네의 심정을 어루만지고 내 갑작스러운 불운을 막아준 사람은?” 인선은 목욕과 더불어 풍성한 저녁식사는 물론 하룻밤 더 자고 가라는 후덕함에 행복감을 “타인이 베푸는 뜻밖의 배려가 가장 귀중하다. 이토록 넘치는 흐뭇함을 몸속 어딘가에 숨겨 놔다가 지긋지긋한 불운이 다시 덮칠 때면 살포시 꺼내 봐야지.”라고 표현하였다. 24번 사찰을 참배하고 돌아왔을 때 하시모토씨는 순례를 무사히 마치라며 새 동전만 모아놓은 봉투를 보시하였다. 목젓까지 차오른 뜨거움을 느끼며 아무도 없는 식당에 앉아 주변의 모든 것에, “그릇에도 식탁에도 간장종이에도 하루종일 대신 비를 맞은 우비에도 묵묵히 일상을 견딜 당신에게도” 감사인사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³⁴⁾. 인선의 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근숙의 주인 하시모토씨는 1만엔 밖에 남지 않은 인선의 사정을 알고서 하룻밤 더 자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순례길에 지친 몸을 쉬어가라는 마음으로 하루 더 머물도록 배려해준 것이다. 그는 동전을 주면서 인선의 행운을 빌어주었는데, 시코쿠 성지순례자이기에 받을 수 있었던 삼륜이 청정한 무주상보시였다.

김남희(2009)는 23번 약왕사(藥王寺; 야쿠오지)로 향하다 길을 물었는데 알려주던 여성이 한국에서 왔다하니 한류 팬이라며 숙소를 정하지 않았으면 자고가라고 하였다. 참배를 마치고서 합류하니 정년퇴직 기념모임에 함께 가서 저녁식사를 보시해주고 따뜻한 잠옷과 잠자리는 물론 아침식사와 점심 도시락까지 보시해주었다. 출발하기 전에는 일본 전통 악기인 고토를 연주해 주었고 동네에서 마주친 할머니들도 100엔씩 보시해 주셨다. 남희는 이 하룻밤을 “한류팬이 선뜻 제공한 숙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기재했다.

박지산(2018)은 11번 등정사(藤井寺; 후지이데라)는 시코쿠의 88개 사찰 가운데 3곳밖에 없는 선종(禪宗) 사찰이다. 지산은 대학생 때 친구들과 등정사에서 운영하는 선근숙에서 묵었다. 등정사 스님은 지산이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중이라고 하자, 같은 선종이라고 반가워하며 손수 컵라면에 뜨거운 물까지 부어와서 보시하였다. 박지산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 받은 큰 호의와 따뜻한 정에 감동하며 사방승가의 감사함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행하는 보시를 큰 공덕으로 여기고 순례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보시행을 정의했다. 시코쿠의 ‘성지순례자’와 더불어 ‘불자’, ‘선종’이라는 공통점은 지산과 등정사 스님의 만남을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시코쿠 성지순례자 가운데에 외국인이나 불자가 아닌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스님의 보시행은 지산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성지순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시코쿠에는 숙박시설 외에도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순례자 휴게소’가 있다. 순례자 휴게소는 대개 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여 깨끗한 편이다. 경인선은 숙소를 찾아 들린 순례자 휴게소(미치노이키)의 아이스박스에서 순례자를 위해 준비된 시원한 음료수와 도시락에 들어있는 사탕, 그리고 구급약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⁵⁾

박지산(2019)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번이나 시코쿠를 완주했다. 그 중 한 번은 지쳐 길에 앉아있다가 자고 가라는 주민의 말에 응해 차를 탔는데, 할아버지는 운전하면서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오늘 밤 순례자를 집에 모신다’며 자랑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시코쿠 사람들의 순례자에 대한 지극한 향심을 엿볼 수 있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행해지는 보시행 가운데 다른 곳에서 만나기 어려운 보시가 바로 ‘공간’ 보시라 사료된다. 성지순례길이 시코쿠 섬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머물 곳이 곳곳에 필요하며, 잘 곳이 마땅치 않으면 불편하기 마련이다. 늦은 시간에도 냉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정갈한 공간과 씻을 수 있는 뜨거운 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는 후덕함과 배려있는 따스한 정은 순례자들에게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감사의 눈물은 나도 보시행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으며, 넘치는 행복감은 일체 인연과 사방승가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고, 언젠가 마주할 불행에 대응할 힘이 되었다.

2) 친절 보시 (안시·화안시·연시·신시·심시)

박지산(2019)이 만난 한 순례자는 시코쿠 성지순례길에서는 미소로 먼저 인사해오는 것을 마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이 따뜻한 것을

33) 최상희, 앞의 책, p.178-179.

34) 경인선, 앞의 책, p.91-101.

35) 경인선, 앞의 책, p.116.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우울하면 다시 찾게 된다고 하였고, 최현경(2021)은 “시코쿠 사람들의 아주 작은 친절과 배려 덕분에”에 성지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시코쿠 성지순례길에서 행해지는 친절한 보시행은 그만큼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일본의 다양한 성지순례길 가운데서도 시코쿠처럼 문화적으로 행해지는 무주상 보시행은 찾아보기 어렵다.

박지산(2019)이 44번 대보사(大寶寺; 다이호지)로 향하던 새벽, 일찍 출발한데다 전날 잠을 설쳐서 매우 피곤했다. 비 때문에 땅이 젖어 설만한 장소를 찾는데 한 할머니가 캔커피와 빵을 보시하며 쉬어가라고 했다. 아침을 안먹었다는 지산의 말에 조금만 빨리 왔으면 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할머니가 더 아쉬워해서,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지산은 피로도 잊고 힘을 내어 부지런히 걸을 수 있었다.

김남희(2009)는 우체국에서 ATM기 인출을 하려 했으나 기계가 카드를 거부했다. 우체국의 전직원(4명)이 달려와 카드를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곳과 통화해본 끝에 영어하는 직원과도 연결해 보았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일어나려는데, 잘 곳은 정했는지 물어보고 지도에 주변 은행이름과 위치를 표기해주었다. 우체국장님은 빨간 우체통 모양의 저금통을 보시해주시고, 나올 때는 전직원의 환송을 받아 남희는 이곳을 “지구에서 가장 친절한 우체국”이라 하였다. 남희는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경험한 친절한 보시행에 대해 “일류 기업의 ‘올해의 친절 사원’으로 뽑힌 직원들을 모아놓은 ‘고객 감동을 위한 집중 연구 과정’에서 최우등상을 탄 사람들 같았다. 공손한 인사를 건네고, 오셋다이(보시)를 제공하고, 묻기도 전에 길을 알려주는 이들의 친절 의식, 그토록 철저히 몸에 밴 친절과 배려는 몇 번의 일본 여행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기록했다.

김효선은 사교성이 좋은 순례자 2분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마을을 지날 때 한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신 것을 보고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한사람씩 정중하게 인사하시고는 지나치려는 것을 불러서 한라봉을 하나씩 보시해주셨다. 납찰을 써드리고 다시 순례길에 올랐는데,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다. 가다가 돌아보니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셔서 다같이 멈춰서 인사했는데,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머리에 썼던 흰 수건을 흔들며 여전히 인사하고 계셨다. 먼 코너를 돌 때까지도 인사하고 계시는 모습에 효선과 동행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가슴이 아프며 코끝이 찡했다. 세사람은 모두 이 이별을 순례를 마친 뒤 가장 인상깊었던 일로 꼽았다.³⁶⁾ 할머니의 정성어린 마음은 시코쿠 사람들이 순례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해준다. 시코쿠 사람들은 가끔 만나는 순례자를 흥법대사의 화신으로 여기고 원만히 순례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순례자에게 보시함으로써 공덕을 짓고 그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순례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고 정성어린 보시행이 1,20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코쿠 성지순례 코스 중 오르막길을 왕복해야 하는 곳이 몇군데 있다. 그런 곳 아래 상점에서는 가방을 맡아주기도 하는데, 경인선은 10번 절번사(切幡寺; 기리하타지)를 오르는 길에 짐을 맡아주는 그림가게를 만났다.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므로 어깨를 잠시라도 쉬게 하라고 베푸는 친절에 편안했다. 절에 다녀오니 시원한 녹차도 보시해 주니 감사한 마음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드렸다.³⁷⁾ 김효선은 71번 미곡사(彌谷寺; 이야다니지)의 300계단을 오르는 입구의 찻집에 가방을 맡겼으며,³⁸⁾ 최현경(2021)도 35번 청량사(淸瀟寺; 기요타키지) 참배 전에 가방을 맡겼다. 현경은 가벼운 어깨에 처음에는 날아갈 것 같았던 발걸음이 점점 천근만근 같아짐을 느끼며 “큰 짐을 내려놔도 최소한의 무게가 따라다니는 게 인생이 아닐까”하고 88개의 액막이 계단을 올랐다. 가볍게 오르기도 힘든 계단인데 가방을 맡아주어 잠시라도 어깨를 쉬게 해주니, 적절할 때에 베풀어진 신시, 무주상보시행이었다.

김남희(2009)는 순례 중 발바닥 물집의 통증을 위해 잠시 양말을 벗었는데, 지나가던 순례자가 배낭을 풀어 손수 발에 약을 바르고 붕대까지 감아주고 갔다. 초면에 냄새나고 물집으로 엉망인 타인의 발을 치료한다는 것은 자비심없이 행하기 어렵다. 시코쿠 성지순례길에서는 이러한 보시행이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행해지고 있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만나는 친절은 공손하고 정중한 인사와 미소, 순례자의 고난을 제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는 따스한 마음과 배려 등으로 드러났다. 뭐라도 챙겨주려는 시코쿠 사람들의 태도와 가방이라도 잠시 맡아주는 보시행 덕분에 순례자들은 포근한 마음으로 가볍게 순례할 수 있었다. 순례자들은 순례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로 ‘친절과 배려’를 꼽았으며,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느끼는 세상의 따뜻함은 우울한 마음도 낫게 해준다고 하였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에 대하여 나열하였는데, 이 가운데 보시바라밀에 관한 내용만 추리면 아래와 같다.

“달라는 이가 없는데 마음을 내어 스스로 주면 보시바라밀이라 하며 … 항상 보시하기를 닦으면 보시바라밀이라 하고 … 보시를 마치고 후회하지 않으면 보시바라밀이라 하며 … 보살마하살이 재물에 대해 왕·도둑·물·불의 4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더라도 기쁘게 보시하여 주면 보시바라밀이라 하며 … 주고도 갚기를 바라지 않으면 보시바라밀이니라.”³⁹⁾

36) 김효선, 앞의 책, p.155-156.

37) 경인선, 앞의 책, p.58.

38) 김효선, 앞의 책, p.242.

39) 『大般涅槃經』卷21 「10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大正藏』12, p.492下29-493上7) “若無乞者 開心自施 是則名為檀波羅蜜 … 若修常施 是則名為檀波羅蜜 … 施已不悔 是則名為檀波羅蜜 … 菩薩摩訶薩 於財物中生四怖心 王賊水火 歡喜施與 是則名為檀波羅蜜 … 施

시코쿠 성지순례에서는 순례자를 만나면 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항상 보시를 행하며,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댓가없이 보시행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보시자가 스스로 행하며 항상 베풀고 기쁜 마음으로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후회없는 보시행은, 삼륜이 청정한 무주상보시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인 동시에 보시섭이고 자리이타의 실천이다.

III. 보시행을 통한 시코쿠 성지순례자의 변화

최현경(2021)은 33번 설해사(雪蹊寺; 셋케이지)로 향하는 길에, 정년퇴임 후 14년째 순례자들에게 차를 보시하고 있다는 이마이상을 만났다. 3111번째 차를 보시받고 잠시 앉아 마시며, 마음속의 부처를 찾아 순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히 마시고 출발하는데 뭔가가 찝찝했다. 그날 저녁에 순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야 현경은 차 한잔에 담긴 친절의 여운이 길어질수록 찝찝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의 보시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었다. 차를 받아마시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성의껏 차값을 보시하여 더 많은 순례자를 응원하는 데 힘을 보탤으면 좋았을 거라는 찝찝함이었다. 이후 현경은 보름 가까이 이어진 강행군에 지쳐서 38번 절 근처인 아시즈리(足摺; 발을 동동 구르다)에서 하룻밤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우연히 3번째 동행자였던 코이즈미상을 만났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짐이 아쉬워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물 한 병을 사고 쫓아가서 보시를 하였다. 한 번 찝찝함을 느끼며 보시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었기에, 다음 기회에는 놓치지 않고 보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마이상의 무주상보시는 현경에게 감사함을 넘어 ‘나도 보시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주었고, 이것은 또 다른 보시행으로 이어졌다.

최현경(2021)은 시코쿠 주민들이 성지순례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즐거움인 것도 같았으며, 힘내라는 말 한마디부터 요깃거리, 차 한잔, 기념품, 길 안내, 심지어 돈까지 아낌없는 보시를 ‘기적’이라 칭했다. 보시행은 국적, 인종,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길 위의 동행자도, 인사도 보시행이라 느꼈다. 현경은 순례하면서 점차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나아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다. 순례하면서 만나는 시코쿠 사람들의 조건없는 보시행과 흥법대사의 불심에 이끌리며 만나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그저 ‘담’이었다고 표현하였다. 현경은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경험한 기적같은 보시행의 감동을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경이로움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게 느꼈다.

김남희(2009)도 자신이 경험한 보시행을 다른 순례자에게 돌려주었다. 남희는 40번 관자재사(觀自在寺; 간지자이지)로 향하는 길에 이탈리아에서 온 로자리오를 만나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동행하였다. 순례를 통해 ‘고통이 가장 큰 스승임을 깨달았기에 두렵지 않다’던 로자리오와 헤어지기 전에 뛰어가서 빵 한 봉지를 사서 그에게 보시하였다. 남희는 이 보시행을 통해 서로 기운 내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기재했다. 무주상보시의 주는 기쁨과 나누는 기쁨을 다 경험한 것이다. 남희는 순례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덕에 50일간의 순례를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는 늘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 한 끼 더운밥이며 음료수 같은 것부터 진심 어린 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헤어지는 일에는 여전히 미숙해 등을 보여야 할 시간이면 어쩔 줄 몰랐다. 한 사람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며칠을 걷기도 했다. ……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토록 많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뒷모습에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았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뒷모습을 바라보고 걷는 며칠 간 남희에게 그는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인로왕보살이며 흥법대사이자 부처님이었을 것이다. 남희는 이 외에도 길에서 만난 인연들을 기록하며, 시코쿠 성지순례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으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말하였다.

경인선은 당연하게 여긴 소소한 것들에 감탄하고 행복해하는 동행자를 보며 자신의 순례에서 빠진 것이 ‘느낌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의 변화를 찾아 시코쿠에 왔는데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고민했는데, 문득 동행인과 밤 체조를 하다가 오늘의 변화는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호흡과 함께 모든 시공간이 살아있음을 느꼈다.⁴⁰⁾

최성현은 66번 운변사(雲邊寺; 운펜지)로 가던 길에 6번째 순례 중인 여성 순례자를 만났다. 그녀는 시코쿠 성지순례를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하였다. 평소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아픈데 시코쿠를 순례하면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하였다.⁴¹⁾

김효선은 87번 장미사(長尾寺; 나가오지)의 기둥에 쓰여있는 ‘인생이 곧 순례길(人生即遍路)’를 보면서 순례자는 장소나 애뜻한 인연에 걸림 없이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운다며, 욕심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가볍게 살아야 한다. 모두가 돌아가는 인생의 고향길이 힘겨워도 어느 순간 멋진 쉼터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걸으리라 다짐했다.⁴²⁾ 또한 효선은 시코쿠 성지순례길은 보시행이 있어 가슴 뭉클한 길이며,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정성 어린 보시행, 정과 체운의 힘으로 걷는 길이라 하였다. 시코쿠는 오랜 세월 버터온 문화재와 자연 절경 뿐 아니라 아름다

不望報 是則名為檀波羅蜜.”

40) 경인선, 앞의 책, p.121.

41) 최성현, 앞의 책, p.95-97.

42) 김효선, 앞의 책, p.275-277.

운 사람들과, 고행 속의 휴머니티, 그들과의 공감에 감동으로 기억되는 곳이며, 누구든 시코쿠의 보시행에 거듭 감탄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⁴³⁾고 하였다.

최상희는 시코쿠 순례길의 오랜 전통인 보시행에 대하여 영화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과제’와 닮아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순례자를 자신을 대신해서 걷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낌없이 나누었다. 무언가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순례자들의 걸음을 응원하고 도왔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부터 잠자리를 선뜻 내어주는 사람까지, 낯선 순례자에게 그들이 베푸는 마음은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순례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길 위에서 만난 순례자들은 자신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었다. …… 길은 굴곡진 내 삶과도 닮아 있었다. 때로는 노숙을 하며 배고픔과 통증, 추위에 맞서야 했지만 나는 해냈다. 나는 혼자 출발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끝까지 걸어낼 수 있었다. 나이, 국적, 직업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나누는 마음만이 길 위에 존재했다”고 표현했다. “내가 순례를 통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손톱만큼의 작은 희망이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순례자들은 이 길을 다 걷고 결원을 한 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변화는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여행기를 적은 이유 또한 최상희가 경험한 소중한 인연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으며, 아버지의 애도로 시작한 순례가 이제는 나눔을 위해 걷고 있음을 밝혔다.⁴⁴⁾

박지산(2019)은 첫 순례 때 빗속에서 88번째 사찰을 향해 걸으며 무거운 발걸음에 순례 도중 받은 보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가장 강렬했다고 기재했다. 시코쿠에서의 보시에 대한 감사함에 이어 부모님과 흥법대사와 삼보에 대한 은혜가 하나하나 떠오르고 무거운 은혜와 감사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물려와 영영 울며 마지막 사찰을 향해 걸었다.

최성현이 순례길에서 만난 순례자는 순례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밥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⁴⁵⁾고 하였으며, 최상희는 터널의 끝에서 환해지는 마음을 느끼고,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한 성지순례의 길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품고 끌어안는 법을 배웠다.⁴⁶⁾

시코쿠 성지순례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보시행을 다른 순례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회향하고자 하였다. 순례자들의 회향은 소극적으로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적극적으로는 다른 보시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순환은 시코쿠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근숙이다. 성현은 4번의 순례를 통해 받은 보시를 순례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선근숙을 운영한다는 ‘우탄 구라 선근숙’의 주인 부부를 언급했다. 600엔으로 목욕, 석식, 조식, 주먹밥과 과일까지 제공하는 것은 ‘생업이 곧 수행(生業即修業)’이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무주상 보시행이다. 또 12번 소산사(燒山寺; 쇼산지) 아래에는 초굴관(酢橘館; 스다치칸) 선근숙이 있는데, 이름처럼 굴 농장을 가지고 있다. 이 선근숙에서 보시받았던 순례자들은 보은하기 위해 수확 철에 와서 도와주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요리·청소·빨래 등을 도우며 ‘보시(오셋다이) 수행’을 하기도 한다.⁴⁷⁾

시코쿠의 친절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던 경인선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한 번은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힘들어보여서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다가 “친절한 금자씨 식의 상큼한 미소⁴⁸⁾”를 돌려받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해오는 인사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가장한 외판원이나 호객꾼, 혹은 ‘도’를 아는지 묻는 등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갈 게 아니라면 적당히 모르는 척해 주는 게 현재의 한국에서는 미덕이다.

순례자들은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청정한 무주상 보시바라밀행을 경험함으로써 종합병원처럼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점차 건강해졌고, 메말랐던 감성이 살아나며 시공간의 살아있음과 평온감, 위로, 공감, 긍정성, 희망감, 사랑, 휴머니티 등을 느꼈다. 성지순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고,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으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끌어안는 법과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순례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늘 무언가를 받았고, 서로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만이 존재하는 ‘기적’이라고 느꼈다. 혼자였으나 혼자가 아닌 일체에 대한 연결감을 체감하면서, 보시자와 동행자, 부모님, 흥법대사, 나아가 삼보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시코쿠 성지순례자들이 느낀 감동으로 인한 내면의 변화는 보시행을 다시 되돌려주는 시도로 나타났다. 동행했던 다른 순례자에게 물이나 빵 등을 사서 보시하여 함께 기운을 내며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고, 뒤늦게 보시행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시코쿠

43) 김효선, 앞의 책, p.5-8.

44) 최상희, 앞의 책, p.209-211.

45) 최성현, 앞의 책, p.23.

46) 최상희, 앞의 책, p.67.

47) 최성현, 앞의 책, p.77-79.

48) 경인선, 앞의 책, p.43-45.

성지순례길에는 순례하면서 받은 보시행을 다른 순례자에게 회향하기 위해 선근속을 운영하거나 무재칠시의 보시행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이것은 ‘보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순례자들은 보시행을 통한 소중한 인연이 다른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례기를 적었으며, 이것은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행해지는 삼륜이 청정한 무주상보시행의 선순환 효과로 진정한 의미의 보시바라밀 회향이라고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일본사람들은 시코쿠를 ‘영장(靈場)’이라 부른다. 홍법대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역사와 유래, 과거를 품고 있기도 하지만, 청정하고 따스한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보살들이 살아 숨 쉬는 신령스러운 땅이기 때문이다. 시코쿠 섬의 사람들은 이 신령스러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낯선 순례자들을 홍법대사의 화신으로, 그들의 삶의 일부로서 수용하고 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본 사람들은 시코쿠 성지순례 속의 보시행을 직접 경험하고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성지순례를 결원할 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말하며 혼자이되 혼자가 아니었던 순례를 상기했다. 보시자들의 육신은 함께 순례하지 못했더라도 보시행을 통하여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코쿠 성지순례 속 보시행은 재시, 법시, 무외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의·식·주는 물론 더 나아가 정신적·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충족시키는 보시행은 순례자의 마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시코쿠 성지순례자들의 보시행을 통하여 적게는 힘이 나는 것에서부터 기쁨, 감동, 공감, 사랑, 행복감, 감사함, 긍정성, 숭고함, 부모님이 나 홍법대사, 사방 승가와 불·법·승 삼보, 일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등을 다양한 것을 느꼈다. 순례길 위에서 만난 인연과의 연결감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였으며, 이들은 고통도 잊을 감동, 불안감 완화,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심리·정서·감정적 변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현실의 삶에서도 언젠가 있을 멋진 쉽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고,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내면에 잠들어 있던 순례자의 정진력을 깨워주었다. 순례자들은 보시행의 감동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 열린 마음으로 합장·찬양·감사하는 것과 모든 인연과 자연현상까지도 선지식으로 삼는 법, 그리고 진언으로 마음챙김을 하며 순례하는 법 등을 배웠다.

각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순례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본래 청정심과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친절과 축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청정한 보시바라밀은, 순례자들이 타인을 위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기쁨을 되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보시 수행’ 등으로 이어졌다. 순례자들의 변화는 자신의 행복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에게 보시바라밀을 회향하는 선순환으로, 자비로운 자리타적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언젠가 온 세상이 시코쿠 성지순례길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무주상 보시바라밀행으로 나와 남이 동시에 행복한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을 통해 시코쿠 성지순례에서 일어나는 보시행을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보시행을 통한 순례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코쿠 성지 순례자들의 여행기를 통해 시코쿠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보시행과 순례자의 느낌을 불교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보시행을 통해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순례자들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시코쿠 성지순례기는 출판 서적과 인터넷에 공식 연재된 문헌으로, 서적은 경인선, 김효선, 최성현, 최상희, 최현경, 인터넷 자료는 김남희, 박지산의 순례기를 참고하였다.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다양한 보시행은 불교적 관점에 따라 재시, 법시, 무외시로 분류하였으며, 보시행을 통한 순례자의 인지·정서·행동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해 본 시코쿠 성지순례에서의 다양한 보시행은 보시자, 순례자, 보시물이 모두 청정한 ‘무주상보시’로, 조건없이 베풀어지는 친절과 축원하는 마음의 보시행은, 순례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감동은 힘이 나는 것, 기쁨, 행복감, 감사함, 긍정성, 든든함, 사방승가에 대한 감사, 고통도 잊을 감동, 스트레스 두통 완화 등 다양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순례자들의 심리·정서적 변화는 자신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었다. 시코쿠 성지순례의 보시행을 통한 순례자의 변화는 자리타적 성격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주요어

시코쿠 성지순례, 순례자, 보시행(오셋다이 お接待), 자리아타, 무주상보시.

참고문헌

-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正藏』 08)
 『金剛般若波羅蜜經論』 卷1 (『大正藏』 25)
 『大般若波羅蜜多經』 卷434 (『大正藏』 07)
 『大般若經』 卷21 「10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大正藏』 12)
 『四分律』 卷32 (『大正藏』 22)
 『雜寶藏經』 卷6 (『大正藏』 04)
 『增壹阿含經』 卷7 (『大正藏』 02)
 『出曜經』 卷12 「11 信品」 (『大正藏』 04)
 『華嚴經探玄記』 卷6 「17 功德華聚菩薩十行品」 (『大正藏』 35)
 『華嚴經探玄記』 卷11 (『大正藏』 35)
- 경인선 (2009). 일생에 한번은 순례여행을 떠나라. 경기: (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 김송이, 정철 (2021). 순례관광의 진정성이 영성적 웰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3(3), 111-133.
- 김정희, 박은숙 (2013). 성지순례 참가동기와 매력성이 성지순례 만족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38(3), 25-54.
- 김형철 (2020). 『화엄경』 「십지품」에 수용된 초기불교 사상과 수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2010). 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거침없이 걷다. 서울: 도서출판 바람구두.
- 노성환 (2017). 일본 시코쿠 순례 속의 한국문화. 일어일문학, 74, 249-274.
- 노지화 (2011). 문화적 관점에서 본 일본 사찰순례(寺刹巡禮)의 의미와 건축적 함의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29, 577-593.
- 박규태 (2019). 고야산과 대사신앙-그 종교적 중층성을 중심으로. 청람사학, 30, 59-112.
- 변찬복 (2013). 시코쿠 도보여행의 존재론적 해석 - 김남희와 경민선의 여행에세이를 대상으로 -. 일본근대학연구, 42, 453-478.
- 송영숙 (2019). 일본의 시코쿠 헨로 개창 설화-에몬 사부로 발심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3, 219-239.
- 송영숙 (2020). 일본 시코쿠 헨로(四國遍路)의 현재적 양상과 의의. 일본어문학, 87, 401-421.
- 송영숙 (2022a). 일본 시코쿠 헨로의 유래와 시대별 전개 양상. 일본문화연구, 82, 177-197.
- 송영숙 (2022b). 일본 시코쿠 헨로 영장 영험담의 유형 및 양상. 일본문화학보, 93, 97-118.
- 이승환 (2019). 사사구리 88개소 영장순례의 유래와 현재적 의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1). 일본 시코쿠헨로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2). 일본 시코쿠 헨로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일어일문학, 81, 372-385.
- 원영상 (2008). 일본 불교의 영장과 성지순례문화 연구-근대의 종교 상황에 이르기 까지. 종교연구, 52, 147-168.
- 장나겸(승덕) (2023). 재가수행을 통해 본 천도의례(薦度儀禮)-보시, 지계, 생천(生天)을 중심으로. 능인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발그니 (2019). 종교성, 성지순례 관여도, 삶의 만족도의 관계 검증-성지순례 관여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6), 299-810.
- 최상희 (2016). 시코쿠를 걷는 여자. 서울: 도서출판 푸른향기.
- 최성현 (2010). 시간도 쉬어가는 길 시코쿠를 걷다. 경기: (주)위즈덤하우스
- 최현경 (2021). 최현경의 '시코쿠 순례' ①~⑨. 매경ECONOMY, 2090~2106. 서울: (주)매일경제신문사.
- 김남희 (2009). 김남희의 시코쿠 도보여행 ①~⑥. 한겨레 esc.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331977.html?_ga=2.142040562.197600153.1702041395-2104109995.1702041394.html에서 2023. 8. 22 자료 얻음.
- 박지산 (2018-2019).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1~35. 현대불교신문.

https://www.hyunbulnews.com/news/articleList.html?page=2&total=35&box_idxno=&sc_sub_section_code=S2N339.html.에서 2023. 8. 23. 자료 얻음.